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남부고시학원 한국사 대표강사 선우빈

선우쌤 총평 : 2017 서울시 사회복지 한국사 문제는 작년에 비해 어렵게 출제되었다.

시대사 출제비율은 전근대사 13 문제, 근현대사 7문제였고 단원별로는 선사시대 및 초기국가 2문제, 정치사 10문제, 사회사 2문제, 경제사 2문제, 문화사 4문제였다.

이번 시험에서 만점 방지용 문제는 정약용 토지제도, 모스크바 3상회의의 문제였다. 특히 모스크바 3상회담은 상식 문제였으나, 이런 문제 유형을 만나보지 못하여 순간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사회복지 한국사는 매년 기존 한국사 출제 유형을 벗어나 새로운 문제가 한두개 정도 출제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소헌세자문제, 정약용 문제, 모스크바3상회의의 문제가 새로운 문제였다.

나머지 문제들은 자주 출제된 문제들이었으나 지엽적인 사실들을 단순하게 말을 바뀌어 출제된 과거 고시스타일의 문제 유형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진 문제였다.

이번 한국사 시험은 85점이면 합격권 점수일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사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가 2016년부터 난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한국사는 쉽게 만점을 받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그렇다고 과거 고시스타일이 지엽적인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기본서를 통해 주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정확한 암기와 함께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17년 한국사 문제 시대별 분석

역사인식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고대사회	2 · 선사시대 · 고조선	2 · 삼국 정치제도		· 통일신라 경제	
중세사회	3 · 왜구의 침략		· 중류층 · 귀족		
근세사회	3 · 소헌세자와 복벌				· 이이 · 교육제도
근대사회 태동	3 · 백두산 정계비			· 정약용의 토지제도	· 농서
근대사회 전개	4 · 텐진 조약 · 헌의 6조 · 사절단				· 한성순보
민족독립운동기	2 · 의열단 · 민족 유일당운동				
현대사회	1 · 모스크바 3상회의				
통합					

문 1. 다음의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천 늑도 유적에서 반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동 화폐가 출토되었다.
- ②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는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가옥이 발견되었다.
- ③ 단양 수양계에서 발견된 아이의 뼈를 ‘홍수아이’라 부른다.
- ④ 울주 반구대에는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의 그림이 주로 새겨져 있다.

☞ 답 ①

▶오답연구 ② 부산 동삼동 패총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이다.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가옥은 청동기 시대의 주거 형태이다.
③ 청원 두루봉 홍수 동굴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 유골이 출토되어 ‘홍수 아이’로 이름 붙여졌다.
④ 울주 반구대(대굴리) 암각화(국보 제285호)는 사슴, 고래, 거북, 물고기, 호랑이, 멧돼지 등 사실적인 그림이 새겨져 있다. 고령 양전동 장기리 바위 그림에 사각형, 동심원 등 기하학적 그림이 새겨져 있다.

문 2. 삼국시대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라 화백회의는 만장일치 원칙이며 회의의 의장은 상좌평이다.
- ② 백제는 관품 구별에 따라 자·단·비·녹색의 공복을 입었다.
- ③ 신라는 진덕여왕대 집사부와 창부를 통합해 정무기관인 품주를 설치하였다.
- ④ 국상, 대대로, 막리지 등은 고구려에서 재상의 직위를 지칭한다.

☞ 답 ④

▶오답연구 ① 화백회의의 의장은 상대등이다. 상좌평은 백제의 수상으로, 정사암 회의에서 3년마다 선거로 선출하였다.
② 백제의 16관등은 3등급으로 나누어 자색, 비색, 청색의 공복을 입었다. 고려 광종이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관등에 따라 자(紫)·단(丹)·비(緋)·녹(綠)의 네 가지로 관리의 복색을 구분하였다.
③ 진덕여왕은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상대등을 약화시키고 품주를 집사부(국가의 기밀 사무 담당)와 창부(재정 담당)로 개편하였다.

문 3.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채택된 ‘헌의 6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외국인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관민이 동심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케 할 것
- ② 전국의 재정은 궁내부 내장원으로 이속하고 예산과 결산은 중추원의 승인을 거칠 것.
- ③ 모든 중대 범죄는 공개 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끝까지 설명하여 마침내 자복(自服)한 후에 시행할 것
- ④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을 구하여 그 과반수에 따라 임명할 것

☞ 답 ②

②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을 주장하였다.

헌의 6조 내용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문 4. 밑줄 친 내용과 관련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남부고시학원 한국사 대표강사 선우빈

전일 ㉠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집을 지어 고운 빨간 빛의 흙을 발라서 단장하고, 또 ㉡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 두고는 그것으로 진기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라 ㉢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으므로, ㉣ 임금의 그 사실을 듣고 불평스럽게 여겼다.

- ① ㉠ 세자 - 북경에서 아담 살과 만나 교류하였다.
 ② ㉡ 포로 - 귀국한 여성 중에는 가족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는 이도 있었다.
 ③ ㉢ 관소 - 심양관은 외교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④ ㉣ 임금 - 전쟁의 치욕을 벗기 위해 북벌론을 적극 추진하였다.

☞ 답 ④

㉠ 소현 세자, ㉡ 인조

④ 북벌론은 청에 불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효종과 송시열·송준길·이완 등 서인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더 알아보기>

① 병자호란 결과 청에 불모로 가게 된 소현세자는 베이징에서 선교사 아담 살과 교류하였고 귀국 때 천주교 서적과 서양 서적 및 과학 기구들을 가져왔다.

③ 심양관은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 인질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등이 거주하였던 관소(館所)로 세자와 대군의 가족 및 세자시강원과 세자의 위사의 관속들이 함께 거주하며 집무하였다. 심양관에 거주하였던 소현세자 일행은 인질의 신분이었지만, 조선과 청의 연락을 담당하였고 외교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문 5. 다음 <보기>의 밑줄 친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운봉을 넘어온 ... (중략) ... 이 싸움에서 아군은 1,600여 필의 군마와 여러 병기를 노획하였고, 살아 도망간 자는 70여 명밖에 없었다고 한다.

『고려사』에서 인용·요약

- ① 그들로부터 개경을 수복한 정세운, 이방실, 김득배는 김용의 주도하에 살해되었다.
 ② 조운선이 그들의 목표물이 되어 국가 재정이 곤란해졌다.
 ③ 그들의 소굴인 대마도가 정벌되어 그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
 ④ 그들이 자주 출몰하자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답 ①

제시된 자료는 『고려사』의 황산 대첩에 대한 내용으로, 밑줄 친 ‘살아 도망간 자’는 왜구이다.

① 정세운, 안우, 이방실, 최영 등은 백련교도로 구성된 홍건적의 침입을 물리쳤다.

문 6. 다음 중 『성학집요』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기이원론적 이기론을 통하여 이(理)의 자발성이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② 신하는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③ 향약의 전국 시행, 수미법의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④ 기자의 행적을 정리한 『기사실기』를 편찬했다.

☞ 답 ①

『성학집요』는 이이의 저술이다.

① 이황에 대한 설명이다. 이황은 주자의 이기이원론을 계승하여 이(理)는 존귀하고 기(氣)는 비천하다는 ‘이존기비론(理尊氣卑論)’으로 발전시켜 불완전한 기(氣)보다 완전한 이(理)를 중시하였다.

1. 청일 양국 군대는 4개월 이내에 조선에서 동시 철병할 것.
 2. 청일 양국은 조선국왕의 군대를 교련하여 자위할 수 있게 하되, 외국 무관 1인 내지 여러 명을 채용하고 두 나라의 무관은 조선에 파견하지 않을 것
 3. 장차 조선에서 변란이나 중대사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출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먼저 문서로 조회하고 사건이 진정된 뒤에는 즉시 병력을 전부 철수하여 잔류시키지 않을 것

① 한성 조약

② 제물포 조약

③ 시모노세키 조약

④ 텐진 조약

☞ 답 ④

④ 다음의 자료는 1885년 4월에 청·일 양국 간에 체결된 텐진 조약이다. 청·일 양국은 조선에서 양국군의 철수와 장차 조선에 파병할 경우 상대방에 미리 알릴 것을 내용으로 하는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로써 일본은 중국과 동등하게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얻었다.

문 8. 다음은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혁안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법은 시행할 수 없다. (㉠)은 모두 한전이었는데, 수리시설이 갖춰지고 메벼와 찰벼가 맛이 좋으니 수전을 버리겠는가. (㉠)이란 평평한 농지인데 나무를 베어 내노라 힘을 들였고 산과 골짜기가 이미 개간되었으니, 이러한 밭을 버리겠는가.

(㉡)법은 시행할 수 없다. (㉡)은 농지와 인구를 계산하여 분배해주는 것인데, 호구의 증감이 달마다 다르고 해마다 다르다. 금년에는 갑의 비율로 분배하였다가 명년에는 을의 비율로 분배해야 하므로 조그마한 차이는 산수에 능한 자라도 살필 수 없고 토지의 비옥도가 경마다 묘마다 달라 한정이 없으니, 어떻게 균등하게 하겠는가.

- ㉠
 ① 한전
 ② 정전
 ③ 여전
 ④ 정전

- ㉡
 ① 균전
 ② 여전
 ③ 한전
 ④ 균전

☞ 답 ④

정약용의 『경제유포』의 전제(田制)에 대한 내용으로 ㉠ 정전, ㉡ 균전이다. 정약용은 초기에 주의 정전제의 시행 가능성을 부정하고 여전제를 주장하였으나 유배기 이후 다시 여전제를 수정하여 정전제를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정전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다른 전제를 검토하면서 정전제도 귀결될 수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예컨대 농지와 인구를 계산하여 분배하는 균전제는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따라서 지주 전호제를 되풀이하며 이는 농업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비판하였다.

결국 정약용의 정전제는 궁극적으로는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한 토지제도이나 현실에 있어서는 지주 전호제를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농민을 자영농으로 육성하여 지주전호제를 철폐하려 하였다.

문 7. 다음의 자료와 관련된 조약에 해당하는 것은?

문 9. 조선정부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근대 문물을 살펴보고 국정 개혁의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남부고시학원 한국사 대표강사 선우빈

자료를 모으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각 사절단의 파견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1차 수신사절
 ㄴ. 보빙사
 ㄷ. 조사시찰단
 ㄹ. 영선사
 ㅁ. 2차 수신사절

- ① ㄱ → ㄷ → ㄹ → ㅁ → ㄴ
 ② ㄱ → ㄹ → ㄷ → ㅁ → ㄴ
 ③ ㄱ → ㅁ → ㄷ → ㄹ → ㄴ
 ④ ㄱ → ㅁ → ㄹ → ㄷ → ㄴ

☞ 답 ③

1차 수신사(1876) → 2차 수신사(1880) → 조사 시찰단(1881. 4) → 영선사(1881. 9) → 보빙사(1883)

문 10. 다음 지문이 가리키는 신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므로 우리 조정에서도 박문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외국의 기사를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의 일까지 기재하여 극중에 알리는 동시에 열국에까지 널리 알리기로 하고, 이름을 旬報라 하며...

- 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 1883년 창간되었으며, 한문체로 발간된 관보의 성격을 띠었다.
 ② 최초로 국한문을 혼용하였고, 내용에 따라 한글 혹은 한문만을 쓰기도 하며 독자층을 넓혀 나가고자 하였다.
 ③ 한글판, 영문판을 따로 출간하여 대중 계몽을 통한 근대화를 촉진하고, 외국인에게 조선의 실정을 제대로 홍보하여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근대적 자주독립국가로 자리 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④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일간지로 주로 유학자층의 계몽에 앞장섰다.

☞ 답 ①

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는 1883년 창간되어, 관보의 성격을 띠고 10일에 한 번 한문으로 발행되었다.

💡오답연구 ② 한성주보, ③ 독립신문, ④ 황성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문 11. 다음 <보기>의 ()에 들어갈 낱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고려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는 중류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중앙 관청의 말단 서리인 (㉠), 궁중 실무 관리인 (㉡), 직업 군인으로 하급 장교인 (㉢) 등이 있었다.

- | | | | |
|---|----|----|----|
| | ㉠ | ㉡ | ㉢ |
| ① | 잡류 | 역리 | 군반 |
| ② | 남반 | 군반 | 역리 |
| ③ | 잡류 | 남반 | 군반 |
| ④ | 남반 | 군반 | 잡류 |

☞ 답 ③

③ 고려의 중류층은 하급 관리, 중앙 관청의 서리[이속(吏屬) 잡류층], 궁중 실무 관리인 남반(南班), 직업 군인으로 군반(中堂軍),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향리 등이 있었다.

문 12. 다음 중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국 측 기록인 『관자』나 『산해경』 등에는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등장한다.
 ② 『삼국지』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에 따르면 연나라가 강성해져 스스로 왕을 칭하자 조선후가 왕을 자칭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③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은 고조선에 망명해 와 있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 ④ 위만조선은 기원전 108년 한나라의 침입에 의해 멸망했고, 이 지역에는 한의 군현이 설치되었다.

☞ 답 ②

② 『위략(魏略)』에 따르면 기원전 4C 이전부터 조선에서 왕을 칭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후(朝鮮侯)가 스스로 왕이라고 일컫고 군사를 동원하여 중국의 연을 공격하려다가 조선의 대부(大夫)인 예(禮)의 만류로 그만두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문 13. 다음 지문과 관계있는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제 폭력의 목적물을 대략 열거할건대, 조선 총독 및 각관공리, 일본 천황 및 각 관공리, 정탐노·매국적, 적의 일체 시설물, 이 밖에 각 지방의 신사나 부호가 비록 현저히 혁명 운동을 방해한 죄가 없을지라도 언어 혹 행동으로 우리의 운동을 완화하고 중상하는 자는 폭력으로써 대응할지니라.

- ① 1932년 1월 이봉창은 도쿄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왕 히로히토를 저격하였다.
 ② 1932년 4월 윤봉길을 상하이 홍콩우 공원에서 일제의 요인들을 폭살시키는 의지를 결행하였다.
 ③ 1920년 박재혁은 밀양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의지를 결행하였다.
 ④ 1926년 나석주는 식민지 대표 착취 기관인 식산 은행과 동양 철식 주식회사에 들어가 폭탄을 던지고 권총으로 관리들을 저격하였다.

☞ 답 ④

제시문은 의열단의 조선 혁명 선언(1923)이다.

💡오답연구 ① ② 한인 애국단(1931)의 활동이다.

③ 박재혁은 1920년에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밀양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것은 최수봉이다.

문 14. 다음 중 통일신라시대의 사회와 경제 관련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② 성덕왕대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③ 헌강왕대에 녹읍이 부활되고, 경덕왕대에 관료전이 폐지되었다.
 ④ 일본 정찬원에서 발견된 '신라 촌락 문서'는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답 ③

③ 경덕왕대에 귀족들의 반발로 관료전을 폐지하고 녹읍을 부활하였다.

문 15. 다음의 비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라총관 목공등은 국경을 조사하라는 교지를 받들어 이 곳에 이르러 살펴 보고 서쪽은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경계를 정해 강이 갈라지는 고개 위에 비석을 세워 기록하노라.

- ① 조선과 청의 대표는 현지 답사를 생략한 채 비를 세웠다.
 ② 토문강의 위치는 간도 귀속 문제와도 관련이 되었다.
 ③ 국경 지역 조선인의 산삼 채취나 사냥이 비 건립의 한 배경이었다.
 ④ 조선 숙종대 세워진 비석의 비문 내용이다.

☞ 답 ①

제시문의 비석은 숙종때 세워진 백두산정계비(1712)이다.

① 조선과 청, 두 나라의 대표들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문 16. 조선시대의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남부고시학원 한국사 대표강사 선우빈

- ① 왕세자는 궁 안의 시강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 ② 성균관에는 생원이나 진사만 입학할 수 있었다.
- ③ 서울에는 서학, 동학, 남학, 중학이 설치되었다.
- ④ 향교의 교생 가운데 시험 성적 나쁜 사람은 군역에 충정되기도 하였다.

☞ 답 ②

② 조선인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유생에게 우선적으로 성균관예의에 입학 기회를 주었다.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유생을 상재생(上齋生)이라 하였으며, 그 외에도 소정의 선발 시험인 승보(升補)나 음서(蔭敍)에 의해 입학한 유생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하재생(下齋生)이라 하였다.

문 17. 다음 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산림경제』	나. 『색경』
다. 『과농소초』	라. 『농가집성』

- ① 가 : 홍만선의 저술로 농업, 임업, 축산업, 식품가공 등을 망라하였다.
- ② 나 : 박세당의 저술로 과수, 축산, 기후 등에 중점을 두었다.
- ③ 다 : 정약용의 저술로 농업기술과 농업정책에 관하여 논하였다.
- ④ 라 : 신숙의 저술로 이앙법을 언급하였다.

☞ 답 ③

③ 『과농소초』는 박지원의 저술이다. 박지원은 『과농소초』, 『한민명진』 등의 농서를 통해 전제·농구·개간·수리·과종·양우(養牛)의 법 등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쏟았다.

문 18. 고려시대 귀족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귀족 세력은 왕족을 비롯하여 7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주류를 형성하였다.
- ② 귀족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여 사림 세력을 형성하였다.
- ③ 귀족의 자제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 ④ 향리의 자제는 과거를 통하여 귀족의 대열에 들 수 없었다.

☞ 답 ③

☛ 오답연구 ① 고려의 귀족 세력은 왕족과 5품 이상 문무 관료로 편성되었다. ② 사림(士林)은 조선 중기에 사회와 정치를 주도한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④ 지방 향리의 자제들이 과거를 통해 신진 관료로 진출하여 보수적 문벌 귀족과 대립하기도 하였지만 몇 대가 지나면 귀족 가문이 되기도 하였다.

문 19. 다음의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제의 민족분열정책과 자치운동론의 등장에 대응하여, 민족 해방운동의 단결과 통일적 대응을 모색하던 사회주의 진영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은 1926년 (㉠) 선언을 계기로, 1927년 1월 (㉡)를 발기하였다. 이어 서 서울청년회계 사회주의자와 물산장려운동계열이 연합한 (㉢)와도 합동할 것을 결의, 마침내 2월 15일 YMCA 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	㉡	㉢
①	북풍회	정우회	고려 공산 청년회
②	정우회	신간회	조선민흥회
③	정우회	근우회	고려 공산 청년회
④	북풍회	신간회	조선민흥회

☞ 답 ②

사회주의 사상 단체인 정우회가 1926년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의 협동 전선 구축'을 선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1927년 신간회가 조직되었다. 한편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조선 민흥회(1926)를 조직하여 타협적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였다.

문 20.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한 한국정부 수립 방안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ㄴ. 미소 공동위원회와 임시민주정부 협의 하에 미, 영, 중, 소에 의한 신탁 통치 방안 결정
ㄷ. 미소 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협의
ㄹ. 임시민주정부 수립

- ① ㄱ → ㄷ → ㄴ → ㄹ
- ② ㄱ → ㄷ → ㄹ → ㄴ
- ③ ㄷ → ㄱ → ㄹ → ㄴ
- ④ ㄷ → ㄹ → ㄱ → ㄴ

☞ 답 ②

한국 정부 수립과 함께 신탁 통치안을 발표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는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신탁 통치 방안을 작성하는 일도 한국의 임시 민주 정부와 한국의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 하에 공동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과제였다.

한국정부 수립방안으로 무엇보다 ㄱ.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 ㄷ. 미소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정당과 사회단체의 협의 → ㄹ. 임시민주정부 수립→ ㄴ. 미소공동위원회와 임시민주 정부 협의하에 4개국의 신탁통치 방안 결정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방안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 내 신탁통치 반대 입장과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작용하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통일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3상회의의 결정 사항은 실현되지 못하였다.